

## 태도내 변산의 크기가 Fishbein Model의 비중치 결정에 미치는 영향

윤 길 근

부천공전대 유아교육과

태도내 변산의 크기가 Fishbein Model의 비중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태도내 변산의 크기가 낮은 집단은 태도요인의 비중치에 의존하고 높은 집단은 주관적규범(SN)의 비중치에 의해서 행동할 것을 예언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40명의 여대생에게 “연하의 남성과의 결혼”에 대한 태도, 태도내 변산, 주관적규범,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

이 결과는 예언대로 태도내 변산이 낮은 집단은 태도요인의 비중치에 의존하고 태도내 변산이 높은 집단은 주관적규범 요인의 비중치에 의존하여 행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태도내 변산의 크기가 Fishbein이 설정한 상대적인 비중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태도내 변산개념이 태도-행동 불일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도내적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태도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기본적인 가정은 태도와 행동과의 일치성에 근거를 둔 가설적 구성체(hypothetical construct)의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주축을 이루어왔다. 전통적으로 태도에 관한 연구는 행동과의 일치성을 전제로 하여 출발하였고, 상황에 의해서 부여되는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행동과의 관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태도와 행동이 일치한다는 근거는 태도개념에 관한 전통적인 정의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개인의 행동은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직관적인 추측이나(Allport, 1935; Campbell, 1950; Doob, 1947; Green, 1954), 자극대상에 관한 행동에서 관찰된 일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Campbell, 1963), 행동은 태도에 의해서 중재되는 것으로 설정했다(Krech, 1962). 태도는 행동과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제기되었지만(Lapierre, 1934; Corey, 1937) 태도개념의 기능적인 유용성은 일치성 가정에 의존해 왔다.

태도와 행동간의 일치성가정은 1960년대 까지 지속되어 왔으나, 태도와 행

동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의문시하는 Wicker(1969)의 논쟁을 시발점으로하여 부정적인 보고가 제기되었다 (Abelson, 1972; Deutscher, 1966, 1973; Rokeach, 1968; Wicker, 1969, 1971; Cald & Ross, 1973). 그 이후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향은 태도외적인 변인의 도입과 태도내적인 과정을 통한 문제해결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태도 개념은 행동예언을 위한 가설구성체라고 가정한다면 부가적인 변인을 도입하기 이전에 원천적인 문제로 환원하여 태도자체의 내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의 추세는 태도외적인 방향을 통한 행동예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외적인 방향의 접근방식은 불일치문제의 해석과정에서 행동과의 상관이 낮다는 ( $r = .30$  이하) 결과론적인 해석에 치중하여 태도의 측정으로 예언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은 외적인 요인으로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여왔다. 외적인 변인이 부가됨으로 인하여 태도의 위치는 행동예언에 참여하는 부분적인 경우로 취급되었다. 태도와 태도외적인 요인이 동등하게 행동예언에 관련된다는 논리에 의하여 외적인 변인들이 제시되었는바 주관적규범(Fishbein & Ajzen, 1975), 사회적압력(Andrews & Kandel, 1979), 행동장면에서 중요한 타인의 압력(Warner & DeFleur, 1969), 준거집단의 압력(Bellin & Krisberg, 1967), 사회적규범의 영향(Fendrich, 1967) 등 여러가지 태도외적인 요인을 도입하여 행동예언에 미치는 영향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외적인 변인을 통한 연구의 결과는 태도자체로서는 행동예언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고 계속해서 검토되어 오다가 Fishbein 과 Ajzen(1975)에 의해서 체계화 되었다. 이들은 태도외적인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종합하고, 측정되는 태도와 행동간의 분수화(specificity) 수준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 고려사항속에서 제시되었다. 즉 행동은 개인자체의 힘인 태도요인과 태도외적인 요인을 반영하는 주관적 규범(subject norm)의 두 가지 기본적인 결정계의 작용결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Fishbein의 계속되는 주장은 (1975, 1977, 1980) 태도만으로도 행동을 예언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태도를 중심개념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문제점은 태도자체를 중심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태도와 태도외적인 요인간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비중치(weight)를 설명해줄 수 있는 준거가 없다는 점이다.

$$B \sim BI = (AB) w_1 + (SN) w_2$$

B ~ BI : 행동내지 행동의도

AB : 태도요인

SN : 주관적규범요인

W1, W2 : 상대적인 비중치

$$AB = \sum_{i=1}^n b_i \cdot e_i \quad : \quad AB \text{ (태도요인)는 행동으로 얻어진 결과에 대한}$$

신념 ( $b_i$ )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e_i$ )의 함수

$$SN = \sum_{i=1}^n b_i \cdot m_i \quad : \quad SN \text{ (주관적규범)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의 신념}$$

( $b_i$ )과 그 신념에 대한 동의여부( $m_i$ )의 함수

개인차원에서 볼때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행동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고 가변적이다. Fishbein은 비중치의 가변성을 문제삼지 않고 두 요인간의 중요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중치는 태도대상이나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한다. 태도요인이 규범적인 요인보다 중요한 비중을 갖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Miniard와 Cohen(1981)은 이론의 개념을 정의하고 조작하는 방식에서 두 가지 요인간의 구별이 부적절하고, 측정상의 문제로서 구인타당도가 결핍되어 있으므로 모형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태도외적인 요인을 통한 접근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태도내적인 과정을 분석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전통적인 태도개념이나 행동예언을 위한 가설적 구성체인 태도중심의 입장에서 볼 때 태도요인과 태도외적인 요인은 상호 보완적이거나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태도의 행동예언력에서 이탈한 부분을 외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이탈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태도자체의 속성으로 밝힐 필요성이 있다. 태도와 행동간의 근본적인 불일치문제의 해결은 태도외적인 변인의 도입 뿐만 아니라 태도적인 (attitudinal) 변인의 제시에 의해서도 해결되기 어렵다. 예컨대 Fishbein의 논리대로 분수화된 행위에 관한 개인의 태도가 높은 상관이 산출된다 하더라도 원천적인 불일치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불일치문제의 출발은 전반적인 대상에 관한 개인의 태도가 행동과 불일치하는 점에 있다. 분수화된 수준에서의 측정은 주어진 행동범위내에서는 예언력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에서 측정되는 예언력의 가치는 특수한 상황과 분수화된 행위에만 국한되는 한계점을 지닌다.

태도를 통한 행동예언의 범위는 상황에 관계없이 규명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근거는 태도개념 자체에서 찾을 필요성이 있다. 즉, 태도내의 작용이 어떻게 작용할 때 불일치 현상이 유발되는지의 기준점이 필요하다.

불일치의 이유를 결과론적으로만 해석하여 외적인 요인으로 돌리기 이전에 태도의 구성개념이나 내적인 구조를 통해서 불일치를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어떠한 요인의 작용이 불일치를 유발하는지를 변별할 수 있는 변인의 제시가 필요하다. 태도자체내에는 행동과 일관되게 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외적인 요인은 일치성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태도내적인 성향은 자체내의 결속력이 강할때 외적인 압력에 저항하여 자기체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이 높아진다.

Lecky(1954)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단일원리 즉 자기일관성(self-consistent)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성향의 관점에서 설명한 바 있다. 단일원리는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태도의 내적인 균형성이나 일관성의 정도가 높을 경우 이에 비례하여 행동과의 일치성도 높아진다. 태도자체가 행동예언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태도구조상의 내적인 요인의 작용때문에 행동예언의 정도가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태도내적인 구조를 통해서 불일치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연구도 산발적으로 제시되었다. Brown(1974)은 태도강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태도의 구조적 속성에서 강한 수준에 있는 개인일수록 태도와 행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고, Norman(1975)은 태도의 인지적구조가 일관성이 있을수록 행동이 태도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밝혔다. Peterson과 Dutton(1975)은 태도구조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태도내적 구조를 통한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태도내의 신념가가 균일하거나 일치성의 정도가 높을 때 행동예언력은 높아지고, 외적인 요인보다는 자신의 태도에 의해서 행동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때 개인의 신념태도 행동은 일관성 있게 유지되려는 내적인 요구가 유발되고 이러한 내적인 구조를 지표화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태도내적인 구조를 통해서 불일치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연구의 결과는 태도구조상의 작용문제에는 기여했지만 불일치문제를 체계화하여 설명하지는 못했다. 태도내적인 구조상의 문제를 분석해볼 때 태도외적인 요인은 태도자체의 구조내에서 이탈한 정도를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간주된다.

태도요인과 태도외적인 요인인 규범적 요인간의 관계를 서로 대립하여 상호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외적인 방향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태도 자체내의 문제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Fishbein의 모형처럼 두 요인을 결정하는 비중치의 결정권의 정도는 태도내

상이나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아니고 태도요인으로 규명할 수 있다.

Biddle 등(1980)은 Fishbein 모형의 주관적 규범요인의 역할에 관하여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분리되어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 규범은 태도를 통해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여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대답이 없다. Fishbein 모형은 출발점에서부터 태도내의 신념은 태도에 영향을 주거나 감소시키는 데에만 사용되고 실체가 없는 요인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신념차원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특성은 무시하고 획일화한 상태로 두었다.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 논쟁에서 외적인 변인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태도자체의 힘으로 환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수원(1982)의 태도내변산(intra-attitude variability) 개념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1982)는 태도내적인 과정을 분석하므로써 불일치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태도내에 존재하는 변산의 크기가 행동예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고, 후속되는 연구(이 수원, 1983; 장 성수, 1983)에 의해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들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태도내변산의 크기에 따라서 행동예언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동일한 태도일지라도 태도내변산이 높을 경우 행동 예언을 방해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동과의 일치성이 낮아진다.

태도내 변산은 태도대상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신념들이 동질성과 이질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변산성은 주어진 상황에서 태도 내부의 요구에 적합하게 행동하려는 개인의 노력범위 정도를 반영하고, 상황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우선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의 정도를 반영한다. 태도외적인 변인을 찾고 있는 입장은 태도 자체의 힘을 이탈하여 행동예언이 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태도내적인 요인은 무시하고 외적인 요인으로 전환하였고 Fishbein은 주관적 규범요인으로 설정한 것이다. 외적인 변인을 도입하여 태도요인과 규범적 요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결과론적으로만 비교·해석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태도내변산개념을 도입하여 태도 자체에 초점을 둔 모형으로 대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태도자체내의 요인에서 이탈한 부분을 태도외적인 요인으로 간주할때 태도외적인 요인은 태도자체내의 요인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 문제의 원인을 태도 자체내의 문제로 간주하고, 이 수원(1982)의 태도내변산 개념을 통해서 불일치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기존의 결과를 통하여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행동예언력에 작용함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태도내변산이 낮은 집단은 태도요인의 비중치에 의존하고, 태도내변산이 높은 집단은 규범적인 요인의 비중치에 의존한다.

둘째, 태도외적 요인인 주관적 규범요인을 고려하게 되면 태도내변산이 높은 집단의 예언력은 증가할 것이다.

## 방 법

**피험자** 대학 1, 2 학년에 재학중인 140 명의 학생이 실험에 참석하였다. 최초의 참여자는 150 명이었으나 측정에 모두 참여하고 기재상의 누락이 없는 140 명을 최종결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태도, 태도내 변산, 주관적 규범의 측정** 피험자들에게 이 검사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관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한 후 태도대상에 관한 연상검사를 실시하였다. 연상검사의 모든 절차는 이 수원(1981)의 연구와 동일하게 하였다. Fishbein(1967)이 제안한 계속적 통제연상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하여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나는 순서대로 제한된 시간(3분) 내에 미리 인쇄되어 배부된 용지에 기록하게 하였다. 응답지에 그려진 줄마다 연상된 내용을 하나씩 기입하게 하였으며 이때에 부가적으로 제시한 지시는 “아래의 빈칸에 여러분이 연하의 남성과의 결혼을 생각할 경우, 떠오르는 신념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고 문장은 의미만 전달되면 되니까, 문법이나 절차에는 구애받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이 생각해 보시오” 라고 하였다.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Fishbein의 태도측정에서 ( $A_i$ )에 해당되는 각각의 연상내용에 대한 호오도를 “-3에서 +3”의 호오척도상에서 등현간격법(equal appearing method)에 따라 평정하게 하였다.

호오측정이 완료된 후에 이어서 연상확률(likelihood)을 평정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지시는 기술한 각 신념이 연상된 확률로서 자신이 기록한 각각의 연상내용과 주어진 태도대상이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가 즉, ‘연하의 남성과의 결혼’을 생각하면 그 신념이 항상 떠오를 때 (100%)에서 전혀 떠오르지 않을 때 (0%)까지의 범위(0%~100%)에서 객관적인 연상확률을 기록하게 하였다. 태도 점수는 Fishbein의 방법에 따라  $\sum B_i \cdot a_i$ , 즉 각각의 연상내용의 호오가를 연상확률의 무게를 주어 합산한 점수로 하였다. 태도내 변산은 이 수원(1981) 장 성수(1982)의 연구에서 태도내 변산을 산출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B_i \cdot A_i$ 의 표준편차 즉 각각의 연상내용에 대하여 연상확률로 무게를 준 호오치들 간의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주관적규범의 측정** 주관적규범(SN)은 준거집단의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찬성 혹은 반대하느냐의 정도( $b_i$ )와 준거집단의 사람의 의견에 어

는 정도 따르겠느냐(mi)를 교적(multiply)한 총화 즉  $\sum bi \cdot mi$ 로  
 서 계산된다.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준거집단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하  
 의 남성과의 결혼”이라는 문제에 접하게 되었을 때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람들을 생각나는대로 적게 하였다. 이어서 bi의 측정으로서 자신이 기  
 술한 각 개인들(부모, 친구, 형제 등)이 연하의 남성과의 결혼을 얼마나 찬  
 성 혹은 반대하느냐를 태도측정과 동일하게 7점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bi의 측정이 끝난 후 mi 즉 준거집단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에 준 지시는 “당신은 연하의 남성과의 결혼”이란 문제에 접했을 때 ( )속  
 에 적힌 사람의 의견에 어느 정도 따르겠느냐?로서 전적으로 따르지 않겠다  
 (-3)에서 전적으로 따르겠다 (+3)의 7점 척도상에서 측정하였다. SN  
 은  $\sum bi \cdot Ai$ 의 총합으로서 산출하였다.

**행동의도의 측정** 실제로 당신의 결혼 상대가 연하의 남성이라면 당신은 결  
 혼을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를 7점 척도상에서 평정하였다.

## 결 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태도내적 구조인 태도내변산이 행동예언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기 위하여 태도내변산의 크기에 따라서 집단을 분류하였다. 높은 변  
 산집단(N:50, S.D.; 0.98 이상)과 낮은 변산집단(N:59, S.D.; 0.96 이하)  
 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집단별로 태도와 행동의도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  
 였다. 집단별 태도와 행동의도간의 적률상관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집단별 태도와 행동의도간의 상관**

집 단	태도 : 행동의도
낮은변산집단	.66**
높은변산집단	.36*

\* p < .01      \*\* p < .001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상관이 태도내변  
 산이 낮은 집단에서는  $r = .66$  높은 변산도 집단에서는  $r = .36$ 으로 산출되  
 였다. Fisher의 Z 환칙으로 상관계수의 차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 태도내  
 변산의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다.(Z: 2.10,  $p < .01$ ) 이는 태도내변산  
 의 크기가 낮은 집단의 행동예언력이 더 높다는 이 수원(1982, 1983) 장 성수  
 (1982)의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고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주관적규범요인을 고려하게 되면 태도내변산이 높은 집단의 예언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별로 태도와 행동의도, 태도와 주관적규범요인을 고려한 행동의도의 조건에서 중다회귀계수와 중다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 표 2 〉 집단별 태도 주관적규범, 행동의도간의 중다회귀계수와 중다상관계수

집단	조 건	중다회귀계수 및 중다상관계수
낮은변산집단	태도/행동의도	BI = 0.25 Att - 0.24 (R = .66 R <sup>2</sup> = .44 df = 1/57 F = 44.2 p < .001)
	태도+주관적규범 /행동의도	BI = 0.25 Att - 0.007 SN - .24 (R = .66 R <sup>2</sup> = .44 df = 1/57 F = 44.2 P < .001)
높은변산집단	태도/행동의도	BI = 0.16 Att + .14 (R = .36 R <sup>2</sup> = .13 df = 1/48, F=7.21 p < .01)
	태도+주관적규범 /행동의도	BI = 0.04 Att + 0.14 SN + 0.58 (R = .78 R <sup>2</sup> = .60 df = 1/48 F = 73.4 p < .001)

(Att : 태도요인 SN : 주관적규범요인)

4 가지 조건에서 모두 의미있는 회귀계수 및 중다상관계수가 산출되었다. 낮은변산집단에서는 주관적규범요인을 고려하여도 중다상관의 차가 없었다. (동일하게 R = .66) 이는 태도와 주관적규범요인을 고려한 상황에서는 주관적규범요인만의 유의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반면에 높은 변산집단에서는 주관적규범요인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R = .36에서 R = .78로 예언력이 증가하였다.(Z = 3.18 p < .01) 태도내변산이 높은 집단에서는 주관적규범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낮은 집단에서는 주관적규범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태도내변산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비중치가 달라짐을 직접 검토하기 위하여 집단별로 상대적인 비중치 (Beta 값)를 산출한 결과 〈 표 3 〉과 같이 산출되었다.

낮은 변산집단에서는 태도요인인 W1의 값 (Beta, 68) 높은 변산집단에서는 주관적규범요인인 W2의 값 (Beta, 74)에 의해서 상대적인 비중치가 결정되고 있다.



〈표 3〉 집단별 상대적인 비중치

집 단	상대적인 비중치 (Beta 값)	F
낮은변산집단	W1 = .68	6.27**
	W2 = .05	
높은변산집단	W1 = .10	.99
	W2 = .74	

\*\*  $p < .001$

(W1 = 태도요인, W2 = 주관적 규범요인)

〈표 2〉와 〈표 3〉의 결과에서 볼 때 태도내변산이 낮은 집단은 태도요인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고 반면에 높은 집단은 주관적규범요인에 의해서 행동의도가 결정된다는 가설 2가 타당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논 의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 논쟁에서 태도개념자체를 통한 불일치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수원(1982, 1983), 장성수(1982)의 태도내변산 개념을 도입하여 Fishbein(1975)이 설정한 태도외적인 요인 즉, 주관적규범(SN)을 태도내변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낮은 집단은 기존의 결과와 동일하게 태도요인의 비중치에 의존하고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높은 집단은 주관적규범요인의 비중치에 의존하여 행동한다는 것을 예언하였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Fishbein이 설정한 Model의 비중치(weight)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즉 행동결정시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낮은 집단은 태도요인에 의존하고 높은 집단은 태도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이 타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불일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Fishbein이 설정한 주관적 규범요인은 태도내 변산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즉, 태도로서 행동예언이 되지 않는 부분을 태도외적요인인 주관적규범으로 돌리기 이전에 태도자체의 요인인 변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비중치는 태도대상이나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아니고 변산의 크기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예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태도내변산의 크기에 따라서 불일치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기존의 결과 (이

수원 1982, 1983, 장 성수 1982)와 달라지는 이유는 태도내변산이 큰 집단은 태도외적인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본 실험의 결과에 비추어 볼때 태도내적요인의 지표가 되는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행동예언에 작용하고 외적인요인을 태도자체의 힘으로 대치하여 확실적인 예언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 동안 불일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태도개념은 성립자체가 가설적 개념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부가적인 변인을 도입하기 이전에 원천적인 문제로 환원하여 태도 자체의 내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태도내변산의 개념이 체계화되면 불일치현상이 유발되는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불일치의 이유를 결과론적으로만 해석하여 외적인 요인으로 돌리기 이전에 태도의 구성개념이나 내적인 구조를 통해서 불일치를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불일치를 유발하는 요인을 변별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 태도내변산개념은 태도내적구조인 태도자체의 힘을 통해서 행동예언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동일한 태도점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변산의 크기에 의해서 행동과의 일치성정도가 달라지고 있다. 태도내변산의 크기는 단순한 측정상의 오차가 아니고, 또한 행동의도를 방해하는 요인도 아니며 의미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큰 집단의 사람들은 왜 태도요인의 영향보다 상황적요인의 영향인 주관적규범에 의해서 행동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결과와 본 실험의 결과에서 볼때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입증된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태도내변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태도내적인 변인을 통한 행동연구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 이수원(1982). 태도·태도내변산 및 행동, *사회심리학연구*, **1**, 101 ~ 123.  
이수원(1983). 태도내변산과 태도의 구조적 속성, *사회심리학연구*, **2**, 179 ~ 203.  
장성수(1982). 태도내변산과 태도의 행동예언력, *사회심리학연구*, **1**, 124~152.  
Abelson, R.(1972). Are attitudes necessary? In B. T. King & E. McGinnies(Eds.), *Attitudes, conflict, and social change*. New York: Academic Press.  
Ajzen, I., & Fishbein, M.(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 888-918.

- Ajzen, I., & Fishbein, M.(1977).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80.
- Allport, G. W.(1935). Attitudes. In C. Murchinson(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Mass. : Clark University Press.
- Allport, G. W., & Odbert, H. S.(1936). Trait-names ; A psycho-lexical study. *Psychological Monograph*, 47(whole No. 211).
- Andrews, K. H., & Kandel, D. B.(1979). Attitude and Behavior : A specification of the contingent consistency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298-310.
- Bellin, S. S., & Kriesberg, L.(1967). Relationship among attitudes, circumstances, and behavior : The case of applying for public housing.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51, 453-469.
- Budd, R. J., & Spencer, C.(1984). Attitude of rejection, centrality and certainty : Variables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norms and behavioral inten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1-8.
- Calder, B. J., & Ross, M.(1973). *Attitudes and behavior*. Morristown, N. J. : General learning Press.
- Campbell, D. T.(1950). The indirect assessment of social attitudes. *Psychological Bulletin*. 47, 15-38.
- Campbell, D. T.(1963). Social attitudes and the acquired behavioral dispositions. In S. Koch(Ed.), *Psychology : A study of science*(Vol. 6), New York : McGraw-Hill.
- Dudycha, G. J.(1936). An objective study of punctuality in relations to personality and achievement. *Archives of Psychology*, 204, 1-319.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Reading, Mass ; Addison-Wesley.
- Hartshorne, H., & May, M. A.(1928). *Studies in the nature of character*, Vol. 1. New York ; Macmillan.
- Jones, E. E., & Nisbett, R. E.(1971). *The actor and observer : Divergent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ehavior*.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Lecky, P.(1945). *Self-consistency : A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 Island Press.
- Miniard, P. W., & Cohen, J. B.(1981). An examination of the Fishbein behavioral intentions model's concept and measur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7, 309-329.

- Mischel, W.(1968). *Personality and Assessment*. New York ;Wiley.
- Passini, F. T., & Norman, W. T.,(1966). A universal concep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44-49.
- Skinner, B, F.(1953). *Science and human behavior*. New York : Macmillan.
- Wicker, A. W.(1969). Attitude vs. Actions : The relationship of verbal and overt behavioral responses to attitude objects.*Journal of Social Issues*. 25, 41-78.

## ABSTRACT

### **The Effect of Intra-Attitude Variability on Behavior Prediction Based on Fishbein Model.**

**Yoon, Gil-Gyeun**

*Department of Preschool Education, Bucheon Technical College*

It was predicted that individuals whose attitudes have been low intra-attitude variability would be predicted well from their attitudes, but high intra-attitude variability would be predicted well from their subjective norms.

It was found that intra-attitude variability factors were capable of altering the nature of the model significantly.

Subjective Norms carried a nonsignificant weight under low intra-attitude variability set condition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or the Intra-attitude variability and for the attitude-behavior consistency controversy were discussed.